

정신보건사회복지 실천과정에 있어서 Freud와 Jung 이론의 유용성 비교

주 소 희

<사회복지학과 · 조교수>
1010jshee@kbtus.ac.kr

I. 들어가는 글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실천현장 중의 하나이다. 많은 사회복지전공자들이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수련을 받고 그 후에는 대학병원 정신과, 대형정신병원, 개인정신과 의원,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그리고 알콜상담센터 및 기타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임상 현장뿐 아니라 개업실천을 통해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는 정신과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환자 및 가족의 상담뿐 아니라 정신과환자의 사회복지 그리고 직업재활의 전 과정까지 개입하는 유일한 전문가로 볼 수 있다. 특히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진단과정의 하나로 환자의 발병원인을 탐색한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환자와 가족 그리고 환자에게 의미있는 사람과의 면접을

통해 발병원인을 사정(Assessment)하게 된다. 즉,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환자의 개인력(personal history)과 가족력(family history)을 탐색하여 환자의 개인적 경험과 가족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 속에서 환자가 보이는 증상의 의미를 파악해 낸다. 증상 파악 후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가족에 대한 개입과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한 가족 및 집단 상담 그리고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 물론 정신과 환자의 발병원인은 생물학적요인, 생화학적요인, 유전적요인, 심리사회적요인, 그리고 가족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병한다. 특히 동일한 진단을 받은 환자라 하더라도 발병원인은 각자 다르며, 환자나 가족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도 문제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실천현장에서는 개인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환자를 사정하고 개입한다.

정신과 환자를 사정하고 개입한다는 것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임상적 기술을 요구한다. 따라서 정신과 환자의 진단과 환자 및 가족을 개입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전문적 지식과 이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인간 행동의 이해에 대한 조직적인 접근은 전문가의 책임성이기 때문에 환자나 가족의 문제와 욕구를 정확하게 사정하고 개입하기 위해서는 인간행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그런 측면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을 정리하는 작업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의 기초적인 작업으로 프로이드와 융의 이론을 비교할 것이다. 이 두 이론을 선택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1900년대 초 사회복지가 전문적인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론적

근거를 모색하였을 때, 정신분석이론은 사회과학이론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의 이론적 틀을 제공해 주었다.¹⁾ 특히, 개별사회사업(case work)의 실천과정에서 정신분석이론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과 인간행동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개념적 틀을 제공해 주어 인간행동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큰 공헌을 세웠다. 융은 인간심성에 대한 전인적 관점을 통해 인과적, 생물학적 그리고 기계적인 인간관을 반대하여 인간 이해의 다양성을 제시해 주며 미래지향적인 인간관 또한 사회복지실천의 기본관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문제와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기여한 이론과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다양한 맥락과 측면에서 해석하게끔 도움을 주는 두 이론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의 유용성을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II. 문헌고찰

1.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 만큼 전 인류의 문명에 광범위하고 깊은 영향을 미친 이론은 거의 없다. 현대 심리학 가운데 최초의 세력으로 등장하여 정신의학 및 심리학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학, 예술 등 현대생활과 관련된 전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인간의 행동이나 활동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과정에서 일어난다는 심리적 결정론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을 탐색하여 개

1) 엄명용 외 2인, 『사회복지실천기술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5), 177.

인의 정신내적 갈등(intrapsychic conflict)을 밝혀내는데 초점을 두게 되고, 현재보다는 과거 특히 초기아동기의 정신적 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었다.

1) 주요개념

정신분석학에서는 인간을 비합리적이고, 결정론적인 존재로 가정하고 있다.²⁾ 프로이드는 인간의 행동이란 기본적인 생물학적충동과 본능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욕망에 의하여 동기화 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개인이 현재자신의 행위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자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출생에서부터 5세 사이의 어린 시절에 경험한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심리성적인 사건들에 의하여 인간의 행동이 결정된다고 보았다.³⁾ 프로이드의 과거 생활경험이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개념은 전문가들이 환자나 클라이언트의 현재의 행동이나 증상 그리고 사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인간의 가능성이나 잠재능력 그리고 환경의 영향에 대한 부분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2) 의식수준과 성격의 구조

프로이드는 의식, 전의식 그리고 무의식이라는 3가지 의식수준을 제안하였다. 우선, 의식이란 한 개인이 현재 각성하고 있는 모든 행위와 감정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수준은 인간생활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그 내용도 잠시 동안 의식될 뿐 우리의 주의가 다른

2) 원호택, 『이상심리학』 (서울: 법문사, 2002), 44.

3) Ibid., 45.

곳으로 돌려지게 되면 빠르게 전의식이나 무의식으로 사라져 버리는 특성을 가진다.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가장 중요한 의식수준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의식의 내용들이 인간행동의 동기로서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의식은 개인이 자신의 힘으로 의식화해서 떠올릴 수 없는 생각이나 감정들을 포함한다. 무의식 속에서는 자신이나 사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감정이나 생각 혹은 충동들이 억압되어 있다. 억압되어 있는 무의식의 내용들은 개인으로 하여금 내적갈등을 경험하게 하고 본래의 모습과는 달리 왜곡된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⁴⁾ 이와 같은 증상들을 신경증이라고 한다. 즉, 현실 속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무의식적 욕구, 욕망, 충동들은 내적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더 이상 방어기제로 내적갈등을 억압할 수 없을 때 소위 신경증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증상들은 무의식적으로 가장되거나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개입(치료)이란 것은 무의식 내에 존재해 있는 갈등을 의식수준으로 끌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성격의 역동성

프로이드는 인간행동의 원천으로서 에너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기본가정으로 삼고 있다. 인간 유기체란 복잡한 에너지체계이며 인간유기체는 음식에서 에너지를 얻어 혈액순환, 근육운동, 호흡 그리고 사고와 기억과 같은 여러 가지 행동과 힘의 원천으로 소모되고 사용된다고 본다.

4) S. Freud, 『프로이드 정신분석입문』, 이정식 역 (서울: 다문, 1995), 160-3.

(1) 정신적 에너지원으로서의 본능

프로이드에 의하면 삶의 본능 가운데서 성격발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성본능이다. 이 성본능에 내재해 있는 정신적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불렀다. 즉 리비도는 성적본능의 정신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삶의 본능으로 불려진다. 인간은 삶의 본능에 의하여 생명을 유지 발전시키고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며 종족의 번창을 가져오게 한다.⁵⁾ 프로이드가 파괴의 본능이라 불렀던 죽음의 본능은 생명체가 무생물로 환원하려는 본능을 말하며 이 본능으로 인간은 결국 자멸하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자신을 파괴하며 처벌하고 그리고 타인이나 환경을 파괴시키려고 서로 싸우며 공격하는 행동을 한다. 결국, 죽음의 본능은 잔학성, 공격, 자살 그리고 살인과 같은 인간의 행동특성을 나타낸다. 성격의 역동성은 일정한 양의 에너지가 세 가지 성격체계, 즉 원욕, 자아, 초자아간에 어떻게 분배되고 활용되는가를 중심으로 설명될 수 있다.

(2) 정신적 에너지원과 원욕(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

원욕은 성격의 가장 원시적인 체계이다. 그 속에서 자아와 초자아가 분화되어 나오는 모체이다. 원욕은 유전되는 것으로 출생때 이미 존재하는 본능을 포괄하는 모든 심리학적인 것으로 구성된다. 원욕은 조직성이 결여되어 있고 맹목적이며, 요구적이고 강요적이다.⁶⁾ 프로이드는 원욕이 주관적 경험의 내적세계를 나타내며 객관적 현실에 대한 지식을

5) Ibid., 39.

6) Corey, Gerald, 『상담과 심리요법의 이론과 실체』, 한기태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0), 29.

찾고 있지 않다 하여 “진정한 정신적 실체”라고 불렀다.) 원욕은 긴장으로 인한 힘의 증대를 견뎌내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외적자극에 의해서든 내적으로 생긴 흥분 때문이든 간에 유기체의 긴장수준이 올라가면 원욕은 긴장을 즉각적으로 해소하여 유기체가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로 되돌아가도록 작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욕이 긴장을 해소하려는 원리를 쾌락의 원리라고 부르게 된다.⁸⁾

원욕이 충동적으로 불합리하게 작용하려는 것을 자아가 제지하는데 에너지 일부가 사용된다. 즉, 유기체가 가진 욕구는 객관적 현실 세계와의 적절한 거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아가 성립된다. 배고픈 사람은 배고픈 긴장이 해소될 때까지 음식을 찾고 발견하여 먹어야 한다. 이것은 원욕의 특성이다. 하지만 음식의 기억심상과 외계에 존재하는 음식과 현실적 상황을 식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⁹⁾ 그 결과 자아는 즉각적인 만족을 조정하고 현실적인 지각을 통해 배고픔을 관리하게 된다. 이것을 ‘현실의 원리’라고 한다. 자아는 현실원리에 따르며 이차과정에 의하여 작용한다. 현실원칙의 목적은 욕구충족을 위하여 적합한 대상이 발견될 때까지 긴장해소를 유보하는데 있다. 현실원리가 쾌락원리를 일차적으로 중시시키기도 하는데 이는 쾌락원리는 필요한 대상을 발견함으로써 긴장이 해소되면 충족되기 때문이다. 자아는 행동을 통제하며 반응할 환경의 특징을 선택하고 어떤 본능을 어떤 방법으로 만족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성격의 집행자라고도 한다. 자아는 원욕과 초자아가 적절하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며, 외

7) 이관용, 이상노, 『성격의 이론』, 45.

8) Ibid., 46

9) S. Freud, 『정신분석입문』, 162.

계와의 필요한 상호교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신적 에너지를 충분히 저장해두는 기능을 해야 한다.¹⁰⁾

성격의 제3요소이며 마지막 조직은 초자아이다. 이것은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이상의 내적표본이며 성격의 도덕적 무기이며 현실보다는 이상을 나타내고 쾌락보다는 완성을 향해 투쟁한다. 초자아의 주요관심은 옳고 그름을 결정하여 사회조직이 공인하는 도덕적 기준에 맞추어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¹¹⁾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 있어서 성격의 역동성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 두 힘(원욕과 초자아)의 상반성에 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지속되는 모든 긴장(tension)은 억제력(초자아는 억제하고 통제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에 대한 추진력(원욕은 욕구를 즉각적으로 해소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의 반작용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성격발달

프로이드의 성격발달이론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개인의 성격이란 유아기의 여러 가지 경험들에 의하여 형성되며 출생 후 5년 사이에 기본 골격이 형성되고 그 후에는 마무리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다. 둘째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성적에너지가 출생시에 나타나며 이것은 일련의 심리성욕단계를 거쳐서 발달해 간다는 것이다. 구강기(oral stage)에는 역동적 활동의 중심이 입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고, 항문기(anal stage)에는 자신의 관심을 배설의 기능에 기울이기 된다. 남

10) Ibid., 46.

11) Ibid., 47.

근기(phallic stage)가 되면 성적체성의 기초를 형성한다. 특히, 남근기에 발생하는 오이디콤플렉스(oedipus complex)와 엘렉트라 콤플렉스(electra complex)는 아동이 이성의 부모에게는 애정을 갖는 반면, 동성의 부모에게는 질투와 적대심을 갖게 되며, 이러한 콤플렉스는 동성부모에 대한 동일시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남자아이들은 아버지로부터 보복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는 거세불안(castration anxiety)을 갖고 여자아이는 남근선망을 갖게 된다.¹²⁾ 잠복기(latency stage)에 이르면 성적인 관심들은 잠시 정지하게 된다. 그리고 사춘기에 이르러 남근기 때 나타났던 오이디푸스적 관심과 엘렉트라 콤플렉스의 생리학적 역동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¹³⁾

5) 심리장애 및 신경증과 증상에 대한 설명

프로이드는 심리장애나 신경증을 성적인 대리만족 상태, 과거에 뿌리를 둔 내적 갈등이 성공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았다.

프로이드는 히스테리환자들의 증상을 연구하면서 환자들이 보이는 증상들은 성적욕구와 충동을 억압한 결과로 보았고 그 억압의 뿌리는 어린 시절 욕망의 좌절과 갈등으로 보았다.¹⁴⁾ 즉 어린 시절 경험한 욕망의 좌절이나 갈등은 성적인 본능의 욕구저지나 고착에 의해 일어난다. 결국, 증상은 욕구저지로 말미암아 생긴 불가피한 새로운 만족, 즉 대리만족이다. 또한 무의식 내에 있는 모든 감정(수치나 당혹감 또는

12) S. Freud, 『정신분석입문』, 163.

13) Burger, J. M., *Personality* (5th ed), (New York: Wadsworth Pub, 2000), 197.

14) 원호택, 『이상심리학』, 54.

분노나 적의에 가득 찬 공격적 흥분과 같은 감정)들이 억압되면 의식 수준에서 불안으로 변형된다.¹⁵⁾

신경증의 증상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동기, 그 사람의 체험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증상을 나타내는 본인에게는 증상의 의미는 알 수 없고 고통감만 의식된다. 하지만 분석가와 의 치료관계를 통해 증상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억압 감정들을 인식하게 된다.

강박장애는 불안을 직접 표면으로 나타내지 않고 과도하게 억압하는 경우에 원치 않는 생각들이 떠올라 이를 떨쳐 버리려고 해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등의 강박관념으로 고통을 받는 정신과 질환 중의 하나이다. 더욱이 강박증이 있는 환자들은 강박관념과 함께 괴로움, 불쾌, 초조 등의 감정이 뒤따르며 강박적으로 떠오르려는 생각을 그만 두려고 하면 할수록 심한 불안이 일어나 강박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즉 강박행동에 의하여 불안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과 강박행동은 단지 불안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6) 정신치료 및 꿈의 분석

프로이드는 신경증의 원인을 무의식적 갈등인 성본능의 욕구저지와 유아기의 정신적 외상 혹은 거세 콤플렉스(castration anxiety)의 작용으로 본다.¹⁶⁾ 이러한 원인에 의해 나타난 증상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무의식을 탐색하여 무의식적인 내용을 현재의 상태에서 다룰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치료한다. 나아가 본능충동들이 통제될 수 있도록 자아를

15) S. Freud, 『정신분석입문』, 111.

16) Ibid., 113.

강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¹⁷⁾ 즉 무의식적 근원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인식의 과정을 통해 치료를 함으로써 환경에 현실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다.

무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치료방법의 하나로 자유연상을 시도한다. 자유연상법은 환자에게 아무리 하찮고 부적절하게 보이더라도 의식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이야기 하도록 요구한다. 치료자의 역할은 상당히 수동적이다. 앉아서 듣고 말이 끊어지면 때때로 질문을 할 정도로 환자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방해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태가 이루어지면 마침내 환자는 어렸을 때 경험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환자의 두서없는 말에서 모든 말은 앞에서 한 말과 역동적으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련이 있음을 통찰할 수 있다.¹⁸⁾ 따라서 전문가들은 환자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이야기와 과거에 했던 이야기는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성을 조직화해서 환자의 전체경험 속에 통합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 다른 치료방법 중의 하나는 꿈이다. 프로이드는 꿈이란 개인의 방어가 약해진 수면상태에서 나타나는 무의식적 충동으로 표현하였다.¹⁹⁾ 그는 현재몽을 소재로 하여 그 배후에 숨어 있는 꿈의 의미, 즉 잠재몽을 해석함으로써 정신적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로 포착한다. 꿈에 관하여 떠오르는 생각도 심적 결정론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꿈의 분석과정에서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저항이 클수록

17) S. Freud,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 김기태 역 (서울: 선영사, 2005), 29.

18) S. Freud, 『프로이드 꿈의 분석』, 60.

19) Ibid., 33.

무의식적인 사물의 왜곡이 심해 무의식적인 것을 찾아내는 것도 힘들다고 본다.²⁰⁾

꿈의 상징적 표현에 대해서 프로이드는 꿈은 무엇이든지 상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즉 잠재적인 사고의 어느 특정요소만이 꿈속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인간은 모두 꿈을 꾸게 되는데 꿈의 모든 영역이 성적인 영역만 나오는 것은 아니나 꿈에 나타나는 상징적 표현은 압도적으로 성적대상이나 성적관계를 나타낸다고 보았다.²¹⁾

치료방법과 목표는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적인 것으로 옮김으로 억압을 해제하고 증상을 형성하는 모든 조건을 제거하여 병인이 되고 있는 갈등을 정상적인 갈등의 형태로 바꾸어 놓는 것으로 무의식적인 것의 의식화, 억압의 해소, 즉 억압을 제거함으로써 비로소 무의식을 의식화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7) 치료과정에 있어서의 전이와 역전이에 대한 설명

치료라는 것은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프로이드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전이와 역전이의 발생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프로이드는 치료 상황만으로 이러한 전이과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속에 이미 오래 전부터 이미 존재해 있었던 감정들이 분석치료를 받게 되는 기회를 틈타 치료자라는 사람에게 전이된 것으로 추측한다.²²⁾ 전이는 환자의 어린 시절 중요한 인물의 특성을 치료자에게 부여하게 되는 과정으로 해석을 통해

20) 이관용, 이상노, 『성격의 이론』, 63.

21) Ibid., 64.

22) G. O. Gabbard, 『역동정신의학』, 이정태, 채영래 역 (서울: 하나의학사, 2001), 41.

환자로 하여금 치료자에게 행해졌던 비현실적이고 유아적인 감정들을 깨닫게 한다.²³⁾ 특히 전이현상은 치료의 초기부터 환자에게서 일어나며 얼마동안은 분석 작업을 받는 가장 강한 동기가 되기도 한다.

2. 융의 분석심리

융은 1909년에서 1913년까지 프로이드와 짧은 결합을 맺었으나 정신분석이론이 성분능 에너지와 결정론적 관점에 치중되어 있는 프로이드와 결별을 선언한 후에 융은 정신분석학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학설을 분석심리학이라고 정의했다.

융은 프로이드와 달리 리비도는 단지 성적인 힘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힘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무의식이 단순히 금지된 충동과 본능적인 성 욕구 및 억압된 기억들의 집합적인 저장 창고가 아니며 인간행동의 가장 원초적이고 보편적 유형을 갖추고 있으며 모든 정신활동의 원천으로 마음의 분열을 지양하고 통일된 마음을 실현하도록 촉진시키는 자가조정의 중심핵이며 자아의 강도와 활력의 원천으로 보았다.²⁴⁾ 특히 인간의 성격형성은 과거 경험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목표에 의하여 형성됨을 주장했다. 그리고 건강한 성격은 유년기부터 중년기까지 성격발달의 장애들을 극복한 뒤에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융은 인생의 중년기에 중점을 두었다.

즉, 융은 인간발달에 있어서 목적성의 역할을 강조했다. 인간은 이유(causes) 또는 목적(aims)에 의해서 생을 영위한다. 인간은 낙관적이고

23) E. Fromm, 『프로이드와 정신분석』, 최혁순 역 (서울: 홍신문화사, 1994), 41.

24) C. G. Jung., 『정신요법의 기본문제』, 한국융연구원 역 (서울: 숲, 2001), 39.

창의적인 존재로 보고 자아실현의 목표를 강조한다. 현재는 과거에 의해서 뿐 아니라 미래에 의해서도 결정되어진다고 보았다.²⁵⁾ 융은 인간의 성격이 자아, 개인 무의식, 집단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1) 자아

자아는 우리가 의식하는 모든 감정, 기억, 사고, 판단, 지각 등으로 구성된다. 융은 자아가 의식의 중심이라고 정의하고 자아는 의식의 주체로서 내가 나임을 알게 하는 정체감을 부여한다고 본다. 자아는 인격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보장한다. 오늘의 자기가 어제의 자기와 같이 느끼는 것이 자아 때문이며,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에 자아가 있어 모든 경험은 자아를 통하여 지각할 수 있다. 인간은 자아가 경험의 의식을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개성화를 달성할 수 있다.²⁶⁾

2) 개인무의식

자아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경험은 개인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곳에 저장된다. 개인 무의식은 우리가 억압한 모든 감정과 사고, 망각된 경험을 말한다. 즉, 의식적인 인상을 주기에는 너무 약한 경험들로 이루어진다. 무의식의 내용은 필요할 때 언제나 쉽게 의식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프로이드의 전의식 수준과 비슷하다. 개인무의식은 특유한 사생활에서 유래한 것이기에 개인마다 다르다.

개인 무의식의 중요한 특징은 개인적 무의식속에 존재하는 감정, 사고, 지각, 기억과 같은 내용이 모여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기도 한다.

25) Corey, Gerald, 『상담과 심리요법의 이론과 실제』, 39.

26) 이관용, 이상노, 『성격의 이론』, 124.

즉, 그것을 콤플렉스(complex)라고 부르고 인간에게는 콤플렉스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다. 콤플렉스는 독립적이고 그 자신이 추진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대단히 강하게 지배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적응에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뛰어난 업적을 쌓는데 불가결한 영감과 충동의 원천이 될 수 있다.²⁷⁾ 예를 들어 모친복합(mother complex)을 생각해보자. 그 핵심의 일부는 어머니들과의 종족적 경험이고 일부는 아이와 어머니와의 개인적 경험에서 유래된 것이다. 어머니에 대한 생각, 감정, 기억들이 핵심으로 모여들어 복합을 형성한다. 핵심이 발사하는 힘이 강할수록 보다 많은 경험들을 유인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성격이 어머니에 의해 지배될 때 그는 강한 복합모성을 가졌다고 한다. 그의 생각, 행동 및 감정은 어머니에 대한 개념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어머니가 말하고 느끼는 것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마음에 어머니의 상이 크게 자리 잡을 것이다.

융은 콤플렉스의 기원이 프로이드와 같이 아동기 초기의 외상성 체험에 있다고 보았으나 나중에 가서는 아동기 외상성 체험보다 훨씬 깊은 그 무엇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라 보았다. 융은 이 깊은 무엇에 강한 호기심을 느껴 정신의 또 하나의 수준을 발견하고 그것을 집단무의식이라고 불렀다.

3) 집단무의식

집단적 또는 전승된 무의식의 개념은 융의 성격이론 중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논쟁을 가져올 수 있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정신의 가장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체계이며 병적인 사례에서는 자아와 개

27) Ibid.,

인적 무의식을 약화시킨다.²⁸⁾

융의 집단무의식은 인간이 생긴 태초부터 인류역사와 민족역사 및 사회집단역사와 관계없이 유전되어 내려오는 공동경험의 침전물이며 강력한 에너지원이다. 즉 개인이 태어날 때 뇌의 조직에 유전되는 강력한 정신유전자인 셈이다. 집단무의식은 그 자체가 유전되기보다는 인간의 오랜 잠재된 경험을 되살리는 능력이 유전되는 것이다. 예컨대 인간에게는 언제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가 어머니를 지각하고 어머니에게 반응하는 소인을 가지고 태어난다. 어머니에 대해 개인적으로 습득된 지식은 종족의 과거 경험에 의해 인간의 뇌에 형성된 유전적인 잠재력의 실현인 것이다. 즉, 인간이 어두움이나 뱀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시인이 어두운데서 많은 위험을 겪었고 희생되었기 때문으로 추측한다.²⁹⁾ 집단무의식은 개인생활에서의 개인적인 것들과는 거의 완전히 분리되었으며 보편적인 것같이 보인다. 집단무의식은 생애의 위험한 시기에 우리 생활의 길잡이 역할을 하므로 자신의 집단적 무의식과 접촉하는 것은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집단 무의식은 인간성의 기반이 되며 개인적인 정신은 바로 이 집단적인 정신에서 생겨난다. 집단무의식의 모든 측면을 개성화(의식화)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환경과 교육 및 학습의 기회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의식의 지혜가 자아에 의해 무시되면 무의식은 의식의 합리적인과정을 장악하여 왜곡된 형태로 뒤틀어 놓으며 분열시킨다.³⁰⁾ 증상, 공포증 그리고 환각 및 기타의 불합리성은 무시된 무의식의 과정에 근거를 둔다.

28) Ibid., 125.

29) Ibid., 126.

30) 한오수, "C. G. Jung의 신경증," 『심성연구』, 14호 (1999): 46-54.

한편, 개인적 무의식이 콤플렉스를 갖는 반면 집단무의식은 원형들을 갖는다.³¹⁾ 즉, 집단무의식에는 여러 내용들은 가지고 있는데 이를 원형이라고 부른다.

(1) 원형

원형이란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을 구성하는 상징 및 모티브이며 원시종족 때부터 수세기에 걸쳐서 전달되어온 특수한 경험과 태도에 관련된 원시적 이미지들이다.³²⁾ 원형의 상징물들은 영적 감정을 느끼는 것, 근본적인 의미를 경험하는 무거운 정서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원형은 집단무의식 속에서 각기 별개의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서로 결합하는 경우도 있으며 많은 원형들 중에서 페르소나, 아니마, 아니무스, 그림자가 있으며 특히 자기는 성격형성에 특별한 역할을 하는데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페르소나(persona)

융 심리학에서 페르소나는 개인의 사회적 요구에 적응하기 위하여 또는 자아와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타협으로 생겨난 공적인 얼굴, 즉 가면이다. 개인은 페르소나에 의해 자신의 성격이 아닌 성격을 연기할 수 있다. 가면의 목적은 남에게 뚜렷한 인상을 주려는 것이며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의 본성을 감추기도 한다. 페르소나는 공적성격이다.³³⁾ 페르소나는 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인상을 주려고

31) C. G. Jung, 『콤플렉스, 원형, 상징』, 유기룡, 양선규 역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1986), 50.

32) 이관용, 이상노, 『성격이론』, 128.

33) *libid.*, 128.

하며 이것은 생존을 위해 필요하지만 페르소나는 유익할 수도 있고 유해할 수도 있다. 개인이 자기가 하고 있는 역할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자아가 이 역할과만 동일시하여 자기본성에서 소외되고 지나치게 발달한 페르소나와 아직 발달하지 않은 성격의 부분이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즉, 그는 단순히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 자발적인 인간이기보다는 사회의 반영일 뿐이다. 그 결과 인간은 긴장 속에서 살게 되거나 심하면 정신병을 경험하게 된다.

② 아니마(anima)와 아니무스(animus)

페르소나가 정신의 외면이라면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정신의 내면에 대한 것이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양성동물이라는 것은 이미 인정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생리적으로 볼 때 남성은 남성과 여성의 두 가지 성호르몬이 분비되고 있으며, 여성도 마찬가지이다. 심리적인 면에서 볼 때 남성적 및 여성적인 두 가지 특성이 양성에서 나타나고 있다. 융은 남성의 성격에 여성적인 측면과 여성의 성격에 남성적인 측면을 원형에 접목시켰다.³⁴⁾ 아니마는 남성이 갖고 있는 집단 무의식적인 여성적 특성이고 아니무스는 여성이 갖는 집단 무의식적인 남성적 특성이다. 오랫동안 여성과 함께 생활하면서 남성이 여성화되고 여성이 남성화되어 온 것이다, 즉,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이성의 상을 지니고 다니며 타인을 통해 우리 자신의 이성 요소를 알게 된다. 이러한 원형은 각 성에게 이성의 특성을 나타나게 할 뿐 아니라 또한 남성에게 반응하고 남성을 이해하도록 동기화시키는 집단적 심상으로서 작용한다. 남자는 그의 아니마 덕분에 여성의 성질을 이해하고 여성은 그의 아니

34) Ibid., 129.

무스 덕분에 남성의 성질을 이해한다. 남자는 마음 안에 있는 여성요소 때문에 멋진 예술적 작품을 만들어내고 여자는 마음 안에 있는 남성적 요소로 씩씩한 창조물을 만들어 낸다.³⁵⁾

③ 그림자(Shadow)

그림자의 원형은 인간이 하등형태의 생물체로부터 진화하면서 지너온 동물적 본능들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림자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성질 중 동물적 측면을 특징짓는다. 원형으로서의 그림자는 인간의 원죄란 개념이 생겨난 근원이 된다.³⁶⁾ 이것이 외부로 투사되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만한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그림자는 페르소나에 의해서 겉으로 가려지거나 개인적 무의식 속에 억압되는 경향이 있다. 원형에서 유래되는 성격의 그늘진 쪽은 개인적 무의식에 대부분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자아의 사적인 면에 투입된다. 그림자는 프로이드의 원욕의 속성과 유사하다.³⁷⁾ 따라서 그림자를 억압하지 않고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면 전인적 인격으로 완성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④ 자기(Theself)

정신, 전체성격과 동일한 것으로 성격의 중심이다. 자기(Theself)는 성격구조의 내용들을 전체성, 통일성,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구실을 한다. 따라서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의 내용을 다 같이 통합하여 성격에

35) Ibid, 130.

36) 한오수, "C. G. Jung의 신경증," 50.

37) 이관용, 이상노, 『성격의 이론』, 130.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격구조가 전체성과 통일성을 이루도록 노력하지만 드물게 도달될 수 있는 생의 목표이다. 모든 원형과 마찬가지로 자기는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며 인간으로 하여금 특히 종교가 제공하는 길을 통해서 완성을 추구한다. 진정한 종교적 경험은 더 자기에 접근하려는 것으로 Christ나 Buddha의 상은 인간이 현대의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만고의 분화된 자기 원형의 표상들이다.³⁸⁾

모든 인격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임과 자기실현의 상태를 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를 실현하는 것은 성격을 균형 있게 형성하는 길이고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길이다. 대개 중년이 지나야 자기를 실현하게 된다. 중년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의 원형이 뚜렷해지지 않는다. 중년이 되면 그의 성격의 중심을 의식적인 자아로부터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으로 옮겨 놓으려고 심각한 노력을 하기 시작한다. 이 중간영역이 자기의 영역이다. 자기는 인격을 조절하고 통제하며 좌우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인격을 성숙시켜 그 지각능력을 높일 수 있다. 인간은 자기의 발달을 통해 자기 삶을 더욱 자각하고 파악하며 이해하고 지배하는 힘을 얻게 된다.

4) 성격의 발달

융은 인간의 성격의 발달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보다는 유전, 어린 시절 부모와의 경험, 교육, 종교, 사회, 연령 등 수많은 조건에 의해서 능동적, 수동적 영향을 받게 된다. 융은 성격발달단계를 명백히 구분하지 않았지만 아동기, 청소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38) Ibid., 131.

구분하고, 중년기를 발달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아주 초기에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활동에 리비도가 투여된다. 5세 이전에 성적 리비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청년기에 최고조에 이른다. 청년기 및 성인 초기에는 기본적 생활본능과 생명과정이 우세하다. 사람이 30대 후반이나 40대 초기에 이를 때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 젊은이다운 관심과 추구는 가치를 잃고 보다 문화적이고 생물적이 아닌 새로운 관심으로 대치된다. 중년기 사람들은 보다 내향적이고 충동성이 적어진다. 신체적·정신적으로 격정적인 것은 지혜와 명민(明敏)성으로 대치된다. 그의 가치는 사회적 종교적 그리고 문화 및 철학적 상징으로 승화된다. 즉, 중년이 되어가면서 인간은 정신적인 사람으로 바뀐다.³⁹⁾ 그것은 외부세계의 적응에서 내적 존재로의 적응으로 이행하는 것이며 물질주의적인 관점을 넘어 개인의 지평을 확대시키는 시기로 보았다. 중년기에 가서 문화적 및 정신적 가치에 모든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중년기 정신적 혼란과 장애가 올 수 있다고 보았다.

5) 심리적인 유형

(1) 의식의 기능

융은 의식의 기능은 감각(sensing), 사고(thinking), 감정(feeling), 직관(intuting) 능력으로 규정하였다. 사고는 직관적이며 지적이다. 사고에 의해서 인간은 세계와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힘쓴다. 사고는 사고 활동 및 진위를 인지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한다. 감정은 쾌와 불쾌를 느끼고 평가하는 활동을 한다. 이것은 주체의 입장에서 긍정적이든 부

39) Ibid., 144.

정적이든 사물의 가치를 따진다. 사고와 감정의 기능은 합리적이지만 서로 배척하는 특성이 있다. 한편 감각은 지각적 현실적 기능이다. 직관은 무의식적 과정과 잠재적 내용들에 의한 지각이다. 직관적인 사람은 현실의 본질을 추구함에 있어서 사실과 감정의 개념을 추구한다. 감각과 직관은 비합리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치판단은 하지 않고 단순히 지각만 한다.⁴⁰⁾

4가지 의식의 기능을 통해 사람을 합리적인 범주와 비합리적인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합리적인 사람은 사고와 감정의 심리적인 기능을 통해 자신을 조절하며, 의사결정시에도 원칙적으로 사고에 의해 지배되며 동시에 정서적 요인과 가치 판단에도 큰 비중을 둔다.

비합리적인 사람은 감각이나 직관에 의해 의사결정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고, 감정, 직관, 감각을 사용하여 생활하는데 이들 중 한 기능이 우월하거나 열등할 수 있으며 이것이 개인의 심리적 유형을 결정한다. 4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분화되지 못한 것을 열등기능이라고 한다. 열등기능은 무의식으로 억압되어 있다. 열등기능은 꿈과 공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6) 신경증과 정신치료

융에게 있어서 신경증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고통으로 보았다. 노이로제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병이며, 자기 자신과의 분단을 의미하고 자기 인격의 분단을 예견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노이로제라는 병을 통해 인격이 통합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보았다.

40) Ibid., 132.

융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의 심리적인 상처가 신경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나 그것이 신경증을 설명하는 전체로 보지 않았다. 신경증은 목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무엇을 겨냥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보았다. 단지 증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의식을 알아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꿈의 분석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융은 무의식은 증상의 뿌리이고 증상은 의식면에 노출된 빙산의 일각으로 이 뿌리를 더듬어가다 보면 개인의 역사보다 더 오래된 신화의 세계에 부딪히게 되어 꿈의 상징의 의미와 원형은 중요하다고 보았다.

치료의 핵심은 그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무의식적 세계의 인식과 합리적 이성이 비난했던 무의식의 환상적인 내용을 발견하고 자연의 존재를 알아감으로서 의식을 살찌게 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보았다.

치료자는 환자의 고통을 공감하고자 하는 태도와 일반적인 가설이나 이론이 환자의 병상에 맞추기보다는 환자개인의 인간성을 통해 그의 일회적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면서 치료자의 환자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수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7) 융의 꿈과 상징

융에게 있어서 꿈은 무의식적인 마음의 가장 명확한 표현이다. 꿈은 무의식적인 정신에 편벽되지 않고 자발적인 산물이다. 꿈은 꾸미지 않은 자연스런 진리를 보여 준다고 말하고 있다. 꿈에 대해 고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는 것이다 꿈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보상적이다. 꿈은 정신이 소홀히 한 따라서 미분화

된 측면을 보상하며 그렇게 함으로서 결여된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

꿈의 일반적인 기능에 대해서 융은 ‘정신 전체의 균형을 재건하기 위해 꿈의 재료를 산출함으로서 심리학적인 균형을 회복하려는 시도이다’라고 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⁴¹⁾ 융은 꿈의 해석에서 고정된 상징 체계나 꿈 해석의 책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즉, 대부분 꿈을 꾸는 당사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심적인 조건이 꿈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융은 꿈의 의미에 대해 미리 구성된 이론적 틀에 맞추려고 하지 않았다. 꿈의 의미에 대해 배우려고 할 경우 꿈 가까이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고 꿈을 꾸는 당사자의 자유연상에 이끌려 멀리 떠나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⁴²⁾

대부분의 꿈은 상징으로 대치되어 나타난다. 융에 있어서의 상징은 위장 이상의 것으로 원시적 본능충동이 변형된 것으로 이해한다. 융은 본능적인 리비도를 문화적인 또는 정신적인 가치로 내보내려는 시도로써 상징을 본다.⁴³⁾ 즉, 상징이란 정신의 표현이며 인간성의 모든 면의 투영이다. 상징은 종족적 개인적으로 획득되고 저장된 인류의 지혜를 표현하려고 할 뿐 아니라 개인의 장래의 상태를 미리 결정하고 있는 발달의 여러 수준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인간의 운명이나 개인의 장래 발전이 상징을 통해 나타난다고 보았다. 상징에는 본능에 의해 인도되는 과거 지향적인 측면과 초월적인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에 의해 인도되는 미래지향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보았다. 그러나 상징에 표현되어 있는 지식은 인간에게 직접 알려져 있지

41) S. Murry, *Jungian Analysis* (Boston; Shambhala, 1984), 148.

42) *Ibid.*, 147.

43) C. G. Jung, 「콤플렉스, 원형, 상징」, 105.

않다.

따라서 상징은 확충법을 통해 해독해야 한다.⁴⁴⁾ 확충법은 특정한 언어요소 또는 이미지에 관한 한 많은 지식을 모두 모아야 하는데 이 지식은 여러 가지 원천에서 얻을 수 있다. 확충의 목적은 꿈, 공상, 환각, 그림 등 인간에게서 생긴 모든 상징적 의미와 원형의 근원을 이해하는데 있다. 확충법이란 인류의 거의 모든 시대에 걸친 종교사, 문화사, 정신사의 영역에서 나온 동류의 혹은 유사한 그림 모티브를 통해 꿈과 같은 체험을 확장시키고 심화시키는 것이다.⁴⁵⁾ 확장의 과정은 꿈이 갖고 있는 의미와 의미를 가능케 하는 다양한 뉘앙스를 상과 상징, 전설과 신화 속에서 개개인의 꿈 모티브들의 의미가 뚜렷해져서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통일성이 입증될 수 있을 때까지 가장 가까운 의미요소와 재차 결합시켜가는 과정이다. 꿈속에서의 상징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꿈속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 또한 개개인에 맞는 의미를 찾아가야 하고 이러한 과정을 확충이라고 볼 수 있다.⁴⁶⁾ 치료자는 개인이 갖고 있는 증상의 목적지향적인 의미를 찾아주어야 하며 꿈의 모티브를 통해서 자기를 찾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III.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사정과 개입이론으로서의 유용성에 관한 고찰

정신보건영역에서의 사회복지실천이 전문직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44) 이관용, 이상노, 『성격이론』, 152.

45) S. Murry, *Jungian Analysis*, 150.

46) C. G. Jung, 『콤플렉스, 원형, 상징』, 107.

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이론적 틀 안에서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클라이언트와 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사회가 부여한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경험적으로 검증된 이론에 입각하여 구체적 형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실천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론적 틀에 기초하지 않은 실천은 임의성에 바탕을 둔 일상적인 되풀이에 불과하거나 기반이 없는 공허한 활동이 될 수 있다. 반면 실천 현장에 바탕을 두지 않은 이론은 현실성이 결여될 수 있다. 프랭크는 사회복지전문직의 정체성확립을 위해서는 모든 실천 활동이 실천에 관한 이론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신보건사회복지영역에서 임상수련을 하는 과정에서 사정을 위한 이론과 개입을 위한 이론을 강조하여 훈련시키는 것도 이러한 맥락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실천에서 이론은 다음과 같은 유용성을 갖고 있어 더욱 중요하다. 우선, 고도의 감정이 개입되기 쉬운 복잡한 인간의 문제와 그 문제 상황에 대한 분석틀을 제공해 주며, 정보 수집을 통해 얻어진 정보나, 가정 등을 하나의 전체적인 의미체계로 조직화 할 수 있고, 실천행동 및 의사결정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하며, 예견 가능한 접근을 촉진할 수 있다. 이렇듯 이론은 환자와 환자를 둘러싼 사회환경의 속성을 이해하게 해 줄뿐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그를 둘러싼 사회환경의 변화를 위해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틀을 제공한다. 프로이드와 융의 이론은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클라이언트의 행동과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며 동시에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 주는 유용한 사정이론이면서 동시에 개입모델이다.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두 이론은 환자와 가족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고 사정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즉, 환자가 보이는 증상의 의미와 무의식이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을 통해 환자의 말과 행동과 사고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졌다. 프로이드는 무의식설을 이론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으로 증명해냈다. 팔다리가 마비되고 통각을 못 느끼는 히스테리환자에게 최면을 걸어 잊었던 과거의 기억을 되살렸더니 운동과 감각마비를 깨끗이 고칠 수 있었던 것이다. 잊었던 과거의 기억은 어린 시절 마음의 상처와 결부되어 있었다.⁴⁷⁾ 그것이 의식에서 떨어져나가 망각 속에 오랫동안 잠겨 있다가 병을 일으킨 불씨가 된 것이다. 프로이드는 괴로운 경험, 현실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충동과 욕구는 무의식에 자신도 모르게 억압된다고 본다. 아동기에 경험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경험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것처럼 그 경험들은 무의식에 남아서 콤플렉스를 형성하여 언제든지 의식의 수면위로 나오기를 준비하고 있다. 무의식에 억압된 충동들은 여러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힘을 발휘하여 엉뚱한데 가서 지장을 일으킨다. 말이 헛나간다든지, 보기 싫은 사람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는다든지 하는 사소한 실수에서 부터 신체의 운동기능을 마비시키거나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거나 하는 해리성전환장애라는 노이로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환자가 보이는 무의식적 갈등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저항은 어떤 사고와 감정이 확고하게 믿는 다른 신념과 양립할 수 없을 때 일어난다. 환자가 무의식적 갈등과 저항의 의미를 모르는 것은 억압이라 불리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겨루고 있는 개념들을 의식

47) 이부영, 『이부영 박사의 정신건강이야기』 (서울: 정우사, 2000), 25.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억압된 사고들은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행동을 역동적이라고 부른다. 정신역동의 무의식은 이러한 꿈꿈 숨겨진 개념들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던 존재하며 대개는 깊숙이 감추어져 있다.

사례를 통해 무의식적 갈등을 이해해 보자. 망상장애를 가지고 있던 환자는 누군가 자신의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보고 있다는 망상으로 매우 불안해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을 고발하겠다고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 환자와의 면담에서 그 환자는 부모와의 갈등과 함께 성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죄의식(부모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무의식적인 원망과 자신이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죄의식)으로 누군가 자신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밖에도 나가지 않고 사람들을 의심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즉, 프로이드의 이론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문제 속에 내포되어 있는 갈등과 그 갈등을 표현하는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과의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더욱 프로이드의 이론은 사회복지실천이 사건과 사고보다는 감정과 무의식적인 요소를 강조하는데 영향을 주었다.⁴⁸⁾ 무의식, 통찰, 공격성, 갈등, 불안, 전이와 같은 많은 개념들은 사회복지실천과 환자의 심리내적인 요인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즉, 의식 이외의 무의식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것이 의식에 영향을 줄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인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학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48) 서진환 외 2인, 『현대사회복지실천이론』 (서울: 나남출판, 2001), 126.

한편 사정 후 개입의 측면에서 정신역동적인 개입방법을 사용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적대감이나 공격성과 같은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환기(ventilation)를 사용한다. 클라이언트의 사고와 감정이 지나치게 억압되어 있다 보면 사고와 행동이 그릇된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표출하도록 돕는다. 개입하는 과정에서 전이와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치료과정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클라이언트는 이전에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에 대한 보상으로 어머니와 딸의 관계와 같은 관계를 사회복지사와 경험한다. 프로이드는 개입과정에서 전이를 해석함으로써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비현실적이고 유아기적인 감정을 깨닫고 환상에서 벗어나도록 엄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치료자의 환자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역전이이다. 치료자는 환자에 대해 항상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기 위해서 치료자는 자기분석을 통해 환자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현재 자신의 개인적인 상호작용이 과거의 관계와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원조할 필요가 있다. 즉,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과정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증가시킬 수 있다.

프로이드는 자기문제를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로 꿈을 활용하고 있다. 프로이드는 꿈을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어렸을 때 갈망하던 소망의 변형된 충족으로 이해했다. 현실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망을 무의식속의 검열기관이 변형시켜 꿈으로 표현함으로써 소망충족과 수면유지의 상반된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⁴⁹⁾ 즉 깨어 있는 동안 무의식의 본능적 소망은 검열에 의해 의식화

할 수 없으나 수면 중에는 검열이 약화되기 때문에 꿈이 될 수 있다. 꿈의 분석을 통해 무의식의 갈등을 알아내어 현재의 불안이나 억압을 해결하도록 하여 꿈 분석을 통해 현재의 갈등을 이해하도록 한다. 프로이드는 꿈은 무의식의 왕도라고 보았다. 그러나 꿈분석을 치료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훈련받아야만 된다.

사실상 정신분석이론이 갖는 많은 제한점들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이론을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활용하는 이유는 정신분석이론이 인간의 삶과 발달에 대한 복잡성을 알게 해주고 우리의 정신과 몸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사회환경과는 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복지사들은 프로이드 이론이 클라이언트를 정형화하고 어린 시절의 틀 속으로, 무의식의 갈등 속으로 한정시켜 클라이언트를 보다 전인적으로 보는 것을 간과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심리·사회적인 전인적인 존재라는 사실과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단순히 아동기의 경험뿐만이 아니라는 생태체계적인 측면에서 개인내적요인과 가족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환경적요인도 영향을 준다고 전제한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프로이드 이론은 인간에 대한 전인적 이해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 환자뿐 아니라 대상자를 이해하는데 보다 확장된 개념의 이론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융의 이론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보다 넓게 보다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준다.

융은 프로이드의 성의 중시에 반대하며 인간은 성적인 것에 귀납할

수 없으며 여러 가지 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융은 인간을 정신의 전체성을 실현하는 존재로 보았으며 미래지향적이며, 긍정적인 인간관을 갖고 있다. 즉, 성격의 발달은 유전, 어린 시절 부모와의 경험, 교육, 종교, 사회, 연령 등 수많은 조건에 의해서 능동적, 수동적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보았다. 융은 아동기의 중요성을 간과하지는 않았지만 중년기를 발달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로 보았다. 또한 환자들의 증상에는 의미가 있어 치료자와 환자의 상호적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자아를 실현해 나아간다고 생각한 점 등은 의미있는 부분이다.

특히 융은 무의식설을 근본적으로 확대 심화시킨 사람이다. 융은 무의식은 억압된 충동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창조의 힘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융은 프로이드학설을 확대 심화했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각도를 달리해서 인간관을 바꾸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융은 무의식은 개인무의식과 집단무의식으로 구분하고 개인무의식은 프로이드의 무의식개념에 상응하는 것으로 출생 이후 그 개인의 경험 세계에서 억압되었거나, 망각된 개인적 정신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다. 한편, 집단무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집단무의식은 생래적으로 이미 갖추어져 있는 보편적이고 선형적인 내용인 원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융에게 있어 진정한 의미의 무의식은 집단 무의식이고 그 내용인 원형은 의식의 일방성을 지양하여 정신의 전체성을 이루려는 보상기능과 초월기능이 있다고 보았다.

융은 무의식 속에 그 사람의 갈등과 고통을 해결하는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⁵⁰⁾ 즉, 결정론적이고 기계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50) 이부영, 『이부영 박사의 정신건강이야기』, 26.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창조하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증상이나 신경증을 바라보고 있다. 즉, 환자가 보이는 증상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치료자는 가면 속에 가려져 있었던 환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융은 정신병리는 정신의 전체성에서 벗어남으로서 생기고 또한 벗어난 상태로 본다. 노이로제는 의식이 무의식으로부터 그리고 자아가 자기로부터 멀어져 나갔을 때 생기는 것으로 보았다. 노이로제의 고통은 떨어져 나간 자기를 되찾아 정신의 전체성을 이루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신병리 현상은 인격의 통합의 기능을 하므로 미래 지향적인 긍정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치료는 인생의 전반기에 있는 사람은 외계의 적응에 그리고 인생의 후반기에 있는 사람은 내면세계의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개입한다. 즉, 환자에 따라 치료자는 모든 전제, 지식, 권위, 작용하고자 하는 의지 등을 포기하고 환자와 순수한 대화에 나서는 것이며 치료자는 더 이상의 치료의 주체가 아니고 환자의 발달과정의 공동체험자이다. 그런 맥락에서 융의 이론은 단지 정신병리를 무의식적 갈등의 표출로서 무의식적 갈등을 해결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주고 자아를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치료의 목표이다.

꿈에 대한 고찰에서도 프로이드는 무의식적 갈등의 표현이고 꿈의 해석도 무의식적 갈등을 표출하도록 돕는 것이라면 융의 있어서는 꿈의 의미를 개인적 무의식의 해석도 중요하지만 집단적, 예시적 긍정적 의미의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어서 보다 융통성 있게 클라이언트를 다룰 수 있게 한다. 즉, 융에게 있어 꿈은 심적 평형을 회복시켜 심리

적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한다. 가면에 의해 가려져 있는 본능적인 부분이 합리적 부분에 보내는 메시지로 빈곤한 의식을 부하게 할 수 있고 잊혀진 본능의 언어를 다소 소생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가면 속에 가려진 진정한 자아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꿈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꿈의 상징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두 이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성들로 인하여 프로이드와 융의 이론은 정신과 영역에서 뿐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복지영역에서 환자나 가족 그리고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사정하고 개입계획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론으로 평가한다.

IV. 결론

사회복지실천영역에서 전문적 지식과 이론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왜 고통받고 힘들어 하는지 알게 해준다.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면 정확한 개입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는데 프로이드 이론은 어떠한 이론보다 설명력이 있다. 융의 이론도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인간을 다루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전문가들에게 융의 인간관은 사람을 보다 통합적이며 전인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인간에 대한 융의 관심, 인간에 대한 온전한 수용, 공감과 같은 부분은 융을 통해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하게 한다.

간단히 프로이드 이론과 융의 이론이 갖는 장단점을 정리하면서 결

론에 도달해 보고자 한다.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이 가지고 있는 기여점은 더 이상의 설명의 여지가 없다. 우선, 심리내적상황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켜 무의식의 존재, 무의식이 성격에 미치는 영향 성격의 구조 및 무의식과 성격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원욕, 자아, 초자아의 개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아의 방어기제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유아기의 경험을 강조하여 가족적응이나 아동의 심리를 주로 다루는 사회복지영역에 큰 영향을 주었다. 심리, 성적요인의 분석을 통해 인간행동의 이해의 역동적인 이론을 제공해주고 있다. 셋째, 가족 내의 상호인간관계에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서 부부간, 부모자녀관계, 형제와의 관계에 관심을 갖게 하면서 동시에 유아기의 가족경험이 개인행동의 중요결정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실천에서 사회복지사의 자기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프로이드의 이론은 사회복지사의 자기인식과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프로이드 이론이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으로 인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 인간의 성격이 프로이드가 주장하듯이 본능, 자아, 초자아의 3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과 둘째, 이 이론이 실질적인 증명의 과정을 거치기가 매우 어려워 구체성이 결여된다는 점, 셋째, 인지 발달을 무시하고 정서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점, 넷째, 현재의 문제를 분석하는데 현재의 경험은 무시하고 유아시절의 경험에 치중한다는 점, 다섯째, 인간이 본능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인간행동의 복잡 미묘한 특성들이 프로이드의 이론의 틀 속에서 이해되어지고 그 행동의 의미와 원인을 발견하여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궁금했던 것들이 해석되면서 클라이언트의 현재의 갈등과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사실상, 정신과에 입원한 많은 환자들을 상담하다 보면,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현재의 환자의 증상과 갈등의 근원이었다는 것을 발견한다.

반면 사회복지실천에서는 클라이언트의 과거보다는 현재, 즉 지금-여기(here and now)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환자를 보다 정확하게 사정하기 위해 환자의 과거경험, 아동기의 경험, 가족간 다양한 관계양상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환자의 증상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사정하게 되면 정확한 개입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한편 융은 성욕자체보다는 자기실현을 위해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긍정적인 인간의 힘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과 무의식이 갈등의 근원이지만 그 속에 그 사람의 갈등과 고통을 해결하는 열쇠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환자들이 보이는 증상은 목적이 있다는 것, 즉, 자기로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의미가 내포되고 있다는 것과, 그러한 자기로의 통합(개성화과정)을 찾아가도록 전문가들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실천에서 중요시 여기는 성장이라는 부분과 동일한 면을 갖는다. 즉,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클라이언트가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데 있고, 인간은 스스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것과, 단지 아동기의 경험에 의해 개인의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는데 초점을 둔다. 융의 이론은 임상현장에서 정신과적인 증상이 단지 증상일 뿐 아니라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물

론 모든 증상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환자들이 보이는 증상은 환자들이 경험한 고통의 표출이라는 것을 간과하지는 말아야 한다.

두 이론을 정리하면서 인간은 생심리사회적인 존재라는 사실이다. 신체적인 질병도 인간에게 영향을 주고 가족간의 갈등과 고통은 심리적인 아픔이 되어 결국 신경증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 두 이론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이해뿐 만아니라 인간의 인격적인 성숙을 향해 나아가려는 개인의 욕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실천현장에서 상황에 따라, 대상자에 따라 두 이론을 적절하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융이 직관적으로 정신분열증환자의 망상내용을 듣고 약물치료보다 분석치료를 선택했듯이 사회복지사들도 이론적 지식과 축적된 임상경험 속에서 이러한 직관력을 발전시켜 융과 프로이드 이론을 실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삶의 목적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해준 두 이론 즉, 정신분석과 분석심리학이라는 이론을 통해 인간에 대해 보다 깊게 이해하고 보다 성숙한 사회복지사로 나아가는 데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 김정진 외 2인.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서울: 서현사, 2006.
- 서진환 외 2인. 『현대 사회복지실천이론』. 서울: 나남출판사, 2001.
- 엄명용 외 2인. 『사회복지실천기술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5.
- 이관용, 이상노. 『성격의 이론』.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2001.
- 원호택. 『이상심리학』. 서울: 법문사, 2002.
- 한오수. “C. G. Jung의 신경증.” 『심성연구』, 14호 (1999): 46-54.
- Burger, J. M. *Personality*. (5th ed). New York: Wadsworth Pub, 2000.
- Gerald, Corey. 『상담과 심리요법의 이론과 실제』. 한기태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0.
- Fromm, E. 『프로이드와 정신분석』. 최혁순역. 서울: 홍신문화사, 1994.
- Freud, S. 『프로이드 정신분석입문』. 이정식 역. 서울: 다문, 1995.
- Freud, S.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 김기태 역. 서울: 선영사, 2005.
- Gabbard, G. O. 『역동정신의학』. 이정태, 채영래 역. 서울: 하나의학사, 2001.
- Murry, S. *Jungian Analysis*. Boston: Shambhala, 1984.
- Jung, C. G. 『정신요법의 기본문제』. 한국 융 연구원 역. 서울: 숲, 2001.
- _____. 『콤플렉스, 원형, 상징』. 유기룡, 양선규 공역.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1986.